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鄭雲天 씨

1차관에 정학수씨, 2차관에 박덕배씨

신 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鄭雲天(54) (사)한국농업CEO연합회장이 내정됐다. 또 제1차관에 정학수(54) 농림부 정책홍보관리 실장이, 제2차관에 박덕배(55)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지난 2월 18일 내정된 鄭신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북 고창출신으로 이리 남성고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원광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0년 전남 해남에서 국내 1호 농업인 주식회사인 '한국참다래 유통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우리 농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거북선농업'을 통해 농업의 차별화, 전문화, 브랜드화 등 독창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해 왔다. 농업인들을 조직화하여 키워를 토착화 하고 고구마를 세척, 포장하여 고부가가치 웰빙상품으로 재탄생시키기도



정운찬 장관



정학수 제1차관



박덕배 제2차관

했다. 저서로는 '거북선농업'이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최경선(47)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지난 2월 29일 임명된 정학수 제1차관은 30년 동안 농림부에 몸담은 정통 농정관료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개방시대 농정방향을 수립한 기획통이다. 또 박덕배 제2차관은 기술고시 15회로 수산청에 입문한 뒤 해양수산부 차관 보까지 지낸 수산통. 업무추진이 합리적이고 자기관리에 철저하다는 평이다.

농진청, 「2008농약관리 현안 토론회」 열어

농약 등록시험 및 등록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약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설명과 등록, 안전성, 품질관리분야의 현안 등에 대한 상호토론을 위한 「2008농약등록시험담당자 교육 및 농약관리 현안토론회」가 지난 2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예산소재 덕산 스파캐슬에서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 농업자원과 주최로 열렸다.

농림부·농진청·농과원·농관원 관계관을 비롯, 농약 제조·수입업체 및 원·부제업체의 본사·공장·부설연구소 관계자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린 금번 토론회에서는 “농약관리 현

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의 정책설명에 이어 “농약 등록 및 안전성관리 방향”에 대해 농업과학기술원 농약평가과 임건재 과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있었다. 또 이튿날에는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성필 부장의 “품목등록 시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비롯, 모두 10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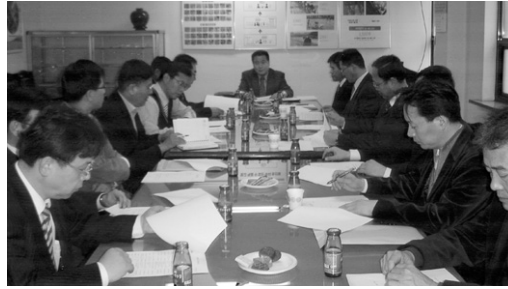
경농, 간편한 투척형제초제로 NEP 인증 획득 노동절감형 주먹탄 점보제, 논독서 던져 논잡초 해결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의 노동력절감형 수도용 제초제 “주먹탄 점보제”가 지난 2월 1일 산업자원부

작물보호協, 제35차 「정기이사회 · 총회」 열어

2.22 협회서, 회장 · 이사 · 감사 등 비상임 임원 재선임

한 국작물보호협회는 지난 2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5차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제17대 회장에 廉炳晩회장(동방아그로 · 대표이사)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는 한편 07년도 회계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기 3년의 제17대 회장으로 재추대 된 廉회장은 수락 인사말을 통해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작물보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계의 사회적 책임실현 등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적극

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제조 및 원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이사회 · 총회에서는 또 감사 및 업무보고에 이어 회원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역시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및 감사회원 등 비상임 임원을 만장일치로 재선임 하였다.

이날 재선임된 이사회원으로는 △(주)경농 △(주)동방아그로 △(주)동부하이텍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주) △성보화학(주) △신젠타 코리아(주) △한국삼공(주)이며 감사회원은 △(주)영일 케미컬 △동양제철화학(주) 등이다.

로부터 신기술제품 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을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주먹탄 점보제”는 작업자가 눈에 들어갈 필요 없이 논둑에서 논안으로 투척하여 논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초제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편리하고 우수한 효과로 농업인들의호응을 받고 있다.

신기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

기술이나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신기술제품 인증평가에 따르면 “주먹탄 점보제”는 논제초제 처음으로 25g짜리 정제로 제제되어 논둑에서 직접살포가 가능하다. 때문에 기존 약제처리시 소요되는 살포기 등 살포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살포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제초제가 1,000㎡(10a)당 3Kg 살포인데 반해 500g만 처리하면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다. 또 하나의 핵심기술은 가스발생과 관련된 기술이다. 업계 최초로 제품보관 중 가스발생을 완전 억제함으로써 우수한 발포력을 계속 유지하여 약제 살포 후 빠르고 균일한 약효를 보장하고 있다.

조비경농장학재단, 미래농업인재에 장학증서 전달

06년부터, 전국 우수 농과대생 14명에 1억원 전달

농업전도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비료 및 농약업계의 대표회사인 (주)조비(대표이사 이병일)와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함께 설립한 '조비경농장학재단'이 지난 2월 20일 전국 농과대 우수학생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동 (주)조비 본사에서 실시된 이날 장학증서 전달식에서는 각 대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우수학생 중 장학금선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강원대학교 자원생물환경학과 한아름 양 등 총 1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이들에게는 2008년도 1년간 등록금이 지원된다.

이날 장학증서를 전달한 조비경농장학재단의 이병만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우



수인재들의 우수한 두뇌와 그에 따르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 농업과 경제에 큰 버팀목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비경농장학재단은 농업분야의 우수인재 육성과 미래 국가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설립되었으며 지난 2년간 전국의 우수농과대학생 30여명에게 약 2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삼공,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열어 캐릭터 '삼공이' 도 제작 발표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작물보호제 전문회사 한국삼공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한광호)가 지난 2월 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한광호 회장을 비롯한 내

외 귀빈과 전현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는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 이어 그 동안 회사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협력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우수 임직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실시한 이날 행사에서 한광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40년 전 오늘, 식량증산과 풍요로운 농촌 건설이라는 기조아래 한국삼공을 창업한 이후,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했지만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굳건한 의지와 지혜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변화무쌍한 농업환경 속에서 지나온 40년보다 다가올 새로운 40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창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주목해

한국삼공, 신제품 '애니충·명작' 출시회 가져

2.15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국내 대표브랜드 기대

창립 40주년을 맞아 캐릭터 '삼공이'를 발표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 온 한국삼공(주)(대표이사 회장 한광호)가 지



“13개 제품을 선보인 올해 애니충과 명작이 삼공의 대표브랜드가 될 것”이라면서 “전국에 전 시포를 운영한 결과 놀라운 효과를 실제 경험했다”고 밝혔다.

난 2월 15일에는 야심작인 신제품 '애니충'과 '명작'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본격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최운홍 전무이사를 비롯,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정원호 회장, 주요 시판상 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기수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삼공이 야심차게 준비한 애니충 및 명작 액상수화제가 드디어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탑브랜드로 우뚝 설 때까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한국삼공은 앞으로도 지난 40년의 성과보다 다가올 10년, 40년을 내실 있게 설계해 작물보호제 산업의 새로운 리더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흥두화 전무는

세계최초의 해충 근육수축제인 「애니충 액상수화제」는 나방전문 살충제로 나방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독특한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비목 유충이 살포된 작물을 조금만 가해해도 섭식을 중단하므로 가해 흔적이 적은 보다 깨끗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꼬리가 달린 유주자가 물속에서 스스로 이동하여 병을 일으키는 역병·노균병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된 「명작 액상수화제」는 설폰아마이드계통으로서 효과가 오래가는 새로운 역병·노균병 전문약이다. 예방 효과는 물론 이미 발병된 작물로부터 주변작물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확산저지 효과가 우수하다. 특히 내우성이 뛰어나 장마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효과를 발휘한다.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한국삼공은 국민과 농업인에게 더욱 친근한 기업으로 다가가기 위한 일환으로 새로운 캐릭터 '삼공이'를 제작 발표하고 기업 이미



지 향상에 활용키로 했다. 자연친화적이고 친근한 기업이미지를 위해 컬러와 형태를 나뭇잎과 물방울에서 모티브를 따온 캐릭터 '삼공이'는 앞으로 각종 광고 및 인쇄물, 홍보·판촉물, 제품 상자 등에 쓰여 다양한 농업인 고객을 만날 것이라고 한국삼공측은 밝혔다.

신젠타, 신제품 「래버스 옵티」 출시

신젠타 코리아(주)(대표이사 김용환)가 역병·탄저병을 동시 방제할 수 있는 신제품 「래버스 옵티」를 출시했다.

역시 새로운 역병·노균병 전문 살균제인 '래버스'의 만디프로피מיד와 보호 살균제인 클로로탈로닐 성분의 적절한 조합으로 탄생한 「래버스 옵티」는 역병 및 탄저병 예방을 위한 전문 약제이다. 특히 만디프로파



미드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등록 판매하는 역병·노균병 예방 전문 성분으로서 신젠타 고추 M방제력을 보완하여, 역병 걱정 없이 깨끗한 농사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추 역병에는 25ml/20 l 를 장마직전부터 10일간격으로, 고추 탄저병 및 감자 역병에는 25ml/20 l 를 발병 초 10일간격으로 살포하면 된다.

경농, 「2008목표달성 전진대회」 개최 「6시그마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선언도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은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충남 조치원 흥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2008 목표달성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고객만족경영을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마케팅본부 소속 총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경영패러다임의 변화와 영업인의 자세'라는 고객만족 특강을 시작으로 2007경영환경 분석 및 2008고객만족 경영 등의 주제로 세미나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농업인들에게 보다 상세한 농업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작물생리 및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특히 역병·노균병 전문약제인 늘사랑을 비롯, 잘

룩병·역병 전문약인 포청천, 수도용 다년생 및 피 전문 제초제인 강산에, 생력형 논제초제인 매치업 등 2008신제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주)경농은 또 지난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본사에서 '6시그마 Kick-Off' 행사와 '6시그마 개선리더 과정 워크숍'을 갖고 「2008년도 6시그마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선언했다.



본사 및 공장 임직원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개선리더 과정 워크숍에서 (주)경농은 지난해 대구공장에서 시작한 6시그마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전 임직원을 6시그마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시그마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김인중 부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6시그마 활동은

「2008하작물 농약품목등록시험 설계 심의회」 개최

약효·약해 504항목, 독성 639약종, 잔류성 582항목 심의

올 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등록시험을 위한 「2008하작물 농약품목등록시험 설계심의회」가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aT센터에서 분야별로 개최됐다.

심의위원 및 시험기관 시험담당자, 업계관계자 등 약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T센터에서 열린 첫날 약효·약해시험을 위한 설계심의회에서는 살균제 178항목, 살충제 224항목, 제초제 90항목, 생장조정제 12항목 등 총 504항목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처리시기 및 방법, 시험장소,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이튿날인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독성 및 잔류성에 대한 설계심의회가 있었다.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통적인 방안 등이 논의된 독성시험 설계심의회에서는 급성 경구 및 경피 각 82약종,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 각 82약종, 피부감작성 82약종, 잉어 86약종, 미꾸리 44약종, 물벼룩 유영저해시험 42약종, 미꾸리 야외포장시험 4약종, 꿀벌 접촉 및 섭식시험 22약종, 꿀벌 염상잔류시험 31약종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또 작물잔류 482항목, 토양잔류 43항목, 수중잔류 57항목에 대한 잔류설계심의회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잔류시험의 중요성을 감안, 설계 및 시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21세기 생존전략"이라면서 "전 임직원이 6시그마를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접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

- 한국작물보호협회 <승진> △홍보부 박학순 부장
- (주)경농 <승진> △마케팅본부 영업1팀 남궁선 상무 △"마케팅기획팀 이진 상무 △"대전지점 김복동 부장 △"마케팅기획팀 김영순 부장 △"안동지점 임원순 부장 △"전주지점 박동욱 부장 △본사관리 제바사업팀 이영표 부장 △"기획관리팀 장지훈 부장 △"경영정보팀 박정민 부장 △중앙연구소

이창혁 부장 △생산본부 공장혁신팀 이용만 상무 △"기술팀 박연준 수석부장 △"기술팀 안상규 수석부장 △"생산1팀 김장엽 수석부장 △"생산2팀 남재왕 수석부장 △"생산3팀 정동진 수석부장 △"총무팀 장병렬 수석부장

- (주)동방아그로 <승진> △공장 관리팀 박상천 부장 △전북지점장 김낙응 부장 △기술연구소장 한병수 부장 <전보>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염병진 전무보 △"기획팀장 강보경 상무 △"경리팀장 김명규 부장
- (주)동부하이텍 <전보> △중부지역본부 김동건 본부장
- (주)오더스퀘어 <승진> △서울사무소 강순호 상무 △공장 박배호 상무